

광주시교육청 유공교원 국외연수 논란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9월 4일

광주시교육청의 진로진학 유공교원 국외연수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진로진학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한 교사 18명을 선발, 6월 18일 일정으로 동유럽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비 400만원이 투입된다.

연수 대상은 일반교 교사 1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1명은 마이스터고, 1명은 대안 특성학교 소속이다. 또 절반 이상은 교육연구부장 등 진학 관련 보직교사들이다.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원으로 최근 3년(2016~2018)간 진로진학 교육에 유공이 있는 교사들로, 2019년 한도 내에서 1인당 소액비

진로진학 우수 교사 18명 동유럽 연수 예정

학벌없는 사회, 대가성 해외연수 재검토 요구

용의 75%를 지원받는다.

이를 두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사실상 진학 등의 실적이 우수한 교사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가성 국외연수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은 배제됐고, '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라'는 2011년 교육부 감사 결과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모임은 "충분한 시간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미 국외 연수 참가자를 선정한 후 요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현장의 문제 제기를 무마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 천만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기 바라며, 농공행상식 대가성 연수가 아닌 묵묵히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분야 교원들이 선진 교육 현장을 탐방하고 이를 학교에서 실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진학팀 관계자는 "18명의 대상자 중 8명은 진학이 아닌 학생진로에 공이 큰 진로상담 교사들"이라며 "특성학교의 경우 별도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어서 일반교 위주 대가성 연수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직업교육팀 관계자는 "특성학교에서는 그동안 통틀어 1명만 국외연수를 보내오다 올해 처음으로 진로진학팀과 별개로 13개 특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교당 한 명씩 국외연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진로 분야 뿐만 아니라 체육담당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올해 수능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으로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의평가가 9월 4일 치러진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19일 발표했다.

평가원이 관할하는 수능 모의평가는 6월과 9월 두 차례로 올해 6월 모의평가는 지난 4일 실시됐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지난 9월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발표했다듯이 EBS 수능교재·강의의 출제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시각장애로 점자문제가 필요한 응시자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한

다. 또한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판 말기를 제공한다.

각 응시자들은 10월 1일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다. 성적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며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한국사 영역은 등급만 제공한다. 수능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제공하지 않는다.

2020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은 물론 오는 8월 7일 실시하는 고졸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7월 4일까지로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학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이런판결 저런판결 ==

"마약 팔아 자선사업"

변명했지만...징역 15년 중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은 5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9일 오전 한모(58)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의 선고공판에서 "개인사 사회 전반에 중한 악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3억8113만8000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면서 약 2년 간 5kg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다"며 "한 번 투약 분량을 0.03g으로 계산하면 16만 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다수의 공범을 끌어들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여성, 심지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끌어 들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인터넷에 의해 국내로 송환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범행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범죄수익으로 캄보디아에서 자선사업을 했다는 알토당도

않은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다"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마약 장사를 목적으로 2015년 11월 캄보디아로 출국, 2016년 4월28일부터 2018년 4월18일까지 공짜여행을 미끼로 여성 운반객을 다수 끌어들이며 속옷에 마약을 숨기게 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이후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투약자와 거래하고 미리 약속한 장소에 소분한 마약을 은닉하는 판매 방식인 '던지기' 수법을 활용해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월 필로폰 투약자 검거로 경찰에 피리를 밝힌 한씨는 지난해 12월12일 현지에서 검거된 후 지난 1월18일 국내 송환됐다.

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내연관계의 채모씨도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 7년에 3억8103만9000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채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한씨가 수입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4월18일에 알았으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1



꿀벌의 해바라기 탐험 한 낮 기온이 28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19일 오후 경남 남해군 서면 인근 길가에서 꿀벌 한 마리가 꽃망울을 터트린 해바라기에 앉아 꿀을 따고 있다.

'상습 성추행' 광주 교육공무원 해임... '고무줄 잣대' 논란

지난해 '스쿨 미투'로 홍역을 치렀던 광주에서 또 다시 교육공무원이 신체적 접촉이 포함된 상습 성추행으로 구속되자 교육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추가 범행이 드러나자 징계수위를 당초 정직 2개월에서 해임으로 올려 학교 현장에서 퇴출시켰다.

일각에서는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도 중징계가 내려진 지난해 스쿨 미투 사건에 비해볼 때 "오라카리한 고무줄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행정실

장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뒤 17일 해임 발표했다.

A씨는 지난 3월말 모 사립유치원에서 신학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일명 예뷰파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인 B씨의 신체 일부 부분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수년간 상습적으로 교육계 관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시교육청은 당초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29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죄 기간이 수년 간에 이르고 피해 여성이 10여 명에 달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2일 징계위

를 다시 열어 재심(再審) 끝에 해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스쿨 미투 사건 당시 신체적 접촉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도 징역 3개월이나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고, 희망교실 예산 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교사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전례에 비해 볼 때 "고무줄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당사자가 인신구속됐다 성비위로 기소됐거나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교원에 대해서는 파면토록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과도 충돌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인호 기자

119대원 도착까지 영상 통화 응급조치 전국 확대

긴급한 상황 시 119에 신고하면 119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영상통화를 하면서 안내를 받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영상통화 서비스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119에 신고하면 소방대 도착 전까지 119상황실에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초기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요령 및 응급처치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심정지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CPR) 처치 방법 및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를 알려주고, 화재·구조 현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즉시 대응 가능한 소방력을 투입하는 식이다.

고덕근 소방청 항공통신과장은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5000만 명이 넘는 통신환경에 맞춰 신고매체를 다양화하고 신고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119서비스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깅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 중 장애조사할 때, 자라치로깅을 응원합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